

문학 동인으로 참여하다

책으로 쓰는 자서전 — 12

김병익 | 문학평론가

“김 현이 문학 계간지 창간을 제안했을 때 나는 다른 뜻에서 선뜻 동의했다. 나는 언론통제가 우습해지던 당시,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한 사건의 근원적인 문제성을 분석·비평할 수 있는 고급지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이다. 문학 계간지가 나의 그런 소망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독립적인 잡지를 만들어본다는 것은 당연히 시도해볼 만한 일이었다.”

1968년의 어느 때쯤이었는지 모르겠다. 김 현이 내게 와서 또래들의 젊은 문학인들로 문학동인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나도 참여해달라고 청했다. 나는 사양했지만 그는 강권했다. 그때 내가 선뜻 동의하지 않은 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었다. 나는 기자로서 겨우겨우 문학분야를 담당하고 기사를 쓰고는 있었지만 그때도 여전히 나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인정할 수 없었다. 문학은 역시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높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현실적인 저항이 있었다. 나는 기자로 자임했고 앞으로도 다름없이 기자일 수 있기를 원했다. 그런데 특정의 문학동인에 참여하게 되면 기자로서의 객관적인 자리와 견해를 갖기 힘들 것이고 설령 내가 공정하게 다룬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김 현이 내 사양의 뜻을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했다.

김 현의 강권으로 《68문학》에 참여해

그런데 얼마 후 《주간 한국》이 한 면을 들인 기사에서 한글 세대의 젊은 문학인들이 동인지를 만든다는 큼직한 기사를 실었고 그 참여자 명단에 내 이름이 끼어 있었다. 분명 김 현이 내 뜻을 무시하고 넣은 것이다. 그는 내 항의를 듣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참여하지 않을 것이어서 무리를 했다고 솔직하게 대답하며 오히려 내게

글을 한편 써야 한다고 다시 강권했다. 어떻게 김 현의 작전은 성공했다. 나는 내가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동인 명단으로 내 이름이 공개된 이상 최소한의 의무는 감당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없는 대로 나는 그 준비 모임에도 한번 참석했고 최인훈의 초기 소설을 나름대로 분석한 글을 한편 준비했다.

이렇게 해서 나온 동인지가 《68문학》이었다. 케케묵은 이 잡지를 용케 찾아내 감회 속에서 뒤져보니 이 잡지의 발행일은 1968년도가 아닌 69년의 1월이었고 발행은 한명문화사, 편집인은 김승욱 등 7명의 동인 이름들이었다. 표지는 김승욱이 그렸을 것인데, 김 현이 썼을 〈편집자의 말〉은 후에 《문학과지성》의 유명한 창간사와 취지를 같이하는 매우 도전적인 글이었다. 그리고 원고료 없이 글을 쓴 동인의 이름들은 30여년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 문단에 하나의 지형도를 그려주는 역시 야심적인 명단이었다. 소설의 박상룡, 박태순, 이청준, 홍성원, 시의 김화영, 박이도, 이성부, 이승훈, 정현중, 최하림, 황동규, 평론의 김주연, 김치수, 김 현, 엄무웅, 그리고 나 등 16명의 작품들은, 그러니까 4·19세대의 의식과 감수성을 요연하게 보여주며 새로운 문학세대의 출현을 예고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동인지는 창간호가 폐간호가 되고 말았다. 내 기억으로는 2호를 내겠다고 글을 쓰라고 해서 서정인 작품론을 써서 썼는데, 흐지부지돼버려 그 원고가 어찌 됐는지도 모르겠거니와 왜 속간되지 않았는지도, 그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은 나는 잘 알 수가 없었다. 아마 자금 문제가 물론 가장 중요했을 것이고 그즈음 일기 시작한 ‘순수/참여 논쟁’으로 동인들의 패가 갈린 것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68문학》의 맥락은 여전히 살아 있어 1970년 마침내 《문학과지성》으로 새로이 든든한 형태로 형성된다. 나는 《문학과지성》의 창간 과정을, 먼저 작고한 김 현과 황인철을 회고하는 자리(〈김 현과 ‘문지’〉, 1990.8; 〈회상 : 황인철과의 40년〉, 1993.7)에서 솔직한 바 있지만, 중복을 무릅쓰고 다시 기억을 더듬지 않으면 안되겠다.

계간지 창간에 뜻을 같이하다

1970년 아마 7월 초였을 것이다. 마침 서울에서 열리고 있던 국제 펜 대회에서 김지하 문제로 시끄럽고 나도 마음이 울울해 있던 참에 김 현이 내게 찾아왔다. 동아일보사 뒤편의 ‘연’ 다방에 자리를 잡자마자 그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한 말이 계간지를 내자는 제안이었다. 한 호만으로 끝난 《68문학》과 같은 동인지가 아니라 지속적인 잡지로 우리 자신의 작품 활동을 할 자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창작과비평》에 근거를 두고 자신들의 입장을 펴는 참여파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 그 편집 동인은 두어 명으로 한정해서 결속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김승욱이 사진 식자업을 시작하려는데 그 이익을 잡지 경비로 대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 등이 뒤이어 나온 상세한 설명이었다.

나는 계간지 간행에 즉각 동의했지만 그 동의의 이유는 그와 좀 달랐다. 1970년이라면 박정희가 3선 개헌을 강요한 뒤였고 정국은 유신체제를 향해 치닫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중앙정보부의

권력이 막강해졌고 그 압박과 폭력 속에서 신문과 방송의 독립적인 언론활동은 점차 위축되고 있었다. 기관원들이 신문에 들락거리며 보도와 논평에 간섭을 가하고 여차하면 남산으로 연행해 갔으며 편집 데스크는 자의든 타의든 비판적인 기사 쓰기를 포기하고 있었다. 《동아일보》 주필이었던 천관우씨가 '가스 중독론'으로 언론계의 이같은 무력화, 마비화에 경종을 울리고 있었지만 사태는 더욱 억압적으로 돼갔고 기자들은 저항에서 자조로 체념하는 중이었다. 오죽하면 휴지통에 버린 기사만 모아 신문을 내면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라고 이죽거렸을까. 내가 계간지 간행에 적극 찬동한 것은 이런 정황에서였다.

나는 다른 양식있는 기자들처럼 권력의 간섭에서 자유로운 매체가 있었으면 하는, 그것도 사건이 아니라 사태에 대해, 폭로보다는 근원적인 문제성을 분석·비평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고급지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차라리 꿈이라고 해야 마땅할, 현실성 없는 소망이었다. 김 현이 말하는 문학 계간지는 나의 그런 소망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이 자유롭게, 내외의 간섭이나 억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독립적인 잡지를 만들어본다는 것은 당연히 시도해볼 만한 것이었다. 내가 그의 제안에 즉각 동의한 것은 이때 문이었다. 다만 김 현에게 한가지 이의를 제시했다. 김승옥의 지원 약속은 그가 아직 사업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익을 거둔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내가 달리 알아보겠다고 한 것이다.

그때 내가 염두에 둔 사람은 중고등학교 동창이며 서울법대를 나온 황인철이었다. 시골 초등학교 교사를 부친으로 둔 아홉 남매의 맏이인 그는 아우들을 책임지고 있어 법관의 박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변호사로 전직해 동아일보사 맞은편에 개업하고 있었다. 나는 우선 그를 찾아가 그에게 계간지 간행 계획을 설명하고 그 원고료를 감당해 줄 수 있겠는가고 물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그의 가정 형편을 잘 알지 못한 데다 개업 후 그 자신의 수입이 늘어 즐거워했기에 그런 어려운 청을 넣었던 것이다. 나의 제의를 들은 그는, 사실은 법조 관계 잡지를 내고 싶었는데 그것이 당장은 어려운 만큼, 그러면 문학지에 지원해주도록 하겠다고 쾌히 승낙했다.

잡지 제호 결정 전말기

며칠 후 나는 내가 끌어들이던 황인철을 김 현과 그가 불러온 김치수에게 소개했고 그 자리에서 잡지 간행을 위한 문제를 상의했다. 한 호에 들 원고료로 예상되는 15만원은 황인철이 내고 기획과 편집은 우리 셋이 맡는다지만 문제는 잡지를 간행해줄 출판사였다. 적자가 분명할 계간지를 발행해줄 출판사를 찾아낸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나는 일조각 한만년 사장을 만나 교섭해보



창간호가 폐간호가 된 《68문학》 동인에는 김 현의 강권으로 참여했지만, 《문학과지성》 창간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사진은 계간 《문학과지성》 창간호 발간 기념으로 동인들과 함께 한 모습(1970년 9월).

기로 했다. 그러나 출판 담당 기자라는 신분으로 사적인 청탁을 한다는 것이 꺼림칙하게 여겨져 좀체 뽀자는 전화를 걸 수 없었다. 미루고 미룬 끝에 드디어 우리 넷이 만나기로 한 날이 닥쳐오자, 나는 용기를 내 한 사장을 찾아가 뽀고 우리의 계획을 설명하고 일조각의 도움 여부를 물었다. 그런데 그는 나의 구차한 설명을 자르듯, 흔쾌하게 "그럼시다"고 대답하고 최재유 주간과 구체적인 문제를 상의해달라고 했다. 나의 조바심에 찬 우려를 깨고 지체없이 해준 그의 쾌락이 두고두고 신기해서 나는 훗날 그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었다. 한만년 사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명망있는 출판사라면 당연히 고급 계간지를 갖는 것이 상례다. 그래서 《창작과비평》을 간행했는데 그 잡지가 신구문화사로 옮겨간 후 따로 계간지를 낼 여유가 없었던 터여서 그 제의를 선뜻 받아들인 것이다."

어떻든 한사장의 수락에 나는 환호했다. 지금의 교보문고 자리에 있던 '비봉' 다방에 모인 세 친구들에게 나는 그 결과를 보고하고 즉각 잡지 간행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상의했다. 잡지 제호는 《현대비평》으로 하고 가을호로 창간한다; 발행인은 물론 일조각 한만년 사장이지만 편집인은 만약의 필화 등을 대비하면서 교로 지원자 명의를 밝혀 황인철로 한다; 편집 동인은 김 현, 김치수, 나 등으로 하지만 유학중인 김주연이 귀국하면 영입한다; 편집에는 재수룩제를 도입해 지난 3개월 동안의 문제작을 다시 게재하며 리뷰를 가한다 등등이 그것들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문공부에 잡지 등록을 신청하며 그 '하회'를 기다리는 동안 계획된 편집에 따라 원고를 청탁하고 재촉하면서 각자 우리가 맡은 원고를 써야 하는 등 바쁜 여름을 보내야 했다. 그런데 비판, 비평이란 단어를 싫어한 문공부가 제호 수정을 요구해와 김 현이 문득 "그럼 '문학과지성'은 어때?"라고 제안했고 "그것도 좋겠다"는 우리의 동의를 받아 개제했다. 문공부가 제호를 정해줬다는 것은 이런 전말을 통해서였다. 당시 것처럼 어렵던 정기간행물 신규 등록은 다행히 친구인 문공부 출입 기자가 애써준 덕분에 9월초에 나왔다. ●